수산물 줄고 축산물 늘고… 소비 불균형 심각

고등어 40%·조기 34% ↓, 소고기 5%·돼지고기 23%↑

방사능 오염 우려 … 어민 피해 대책 마련 절실

일본 원전 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축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균형잡힌 먹을거리 소비로의 회복과 피해 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매장 주요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고등어 40.0%, 조기 34.4%, 명태 3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산 갈치의 경우 공급량 증가와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63.7%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한반도 인근 수원 상승으로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명태는 공급량마저 줄어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추세는 '수협공판장 국내수산물 취급실적'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수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국내수산물 취급량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수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국내수산물은 총 1만435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557t) 보다 13.3% 감소했다. 특히 9월의 경우 지난해 보다 1446t이 감소해 무려 20.3%나 줄었다.

반면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주요 축산물 매출은 소고기가 4.8%, 돼지고기 23.3%, 닭고기 23.3% 신장해 수산물과는 대조를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소고기 매출이 40% 가량 신장됐으며, 한우는 5% 가량 증가했다.

돼지고기도 구이용 부위인 삼겹살, 목심의 매출은 1%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반찬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앞·뒷다리살, 사태 등은 15% 가량 늘어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비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소비촉진 활동으로 피해 어민 지원에 나서야 하고 축산물 역시 수급 조정으로 가격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YWCA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광주시의원들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등 식재료 관리와 검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기유정 광주YWCA 소비자신고센터 부장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균형잡힌 공급과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특정한 요인으로 소비 불균형이 나오는 것은 마트나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며 "국내 수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해 들여온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어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의 쌀' 기탁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귀남) 직원들이 최근 목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쌀 10kg 40포를 기탁했다. 〈전남농협 제공〉

KT&G, '인종차별 논란' 담배 광고 변경

KT&G는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담배 '디스 아프리카'의 광고안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KT&G에 따르면 지난달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아프리카 전통 훈연 방식으로 구워 건조한 잎담배를 함유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담배 패키지 겉면과 광고지에 원숭이를 사용했다.

담배 패키지 겉면에는 원숭이 두 마리가 담배잎을 굽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상점에 비치된 광고지에는 원숭이가 마이크를 들고 '디스 아프리카'의 출시를 알리고 있다.

이 광고가 나가자 아프리카를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프리카담배통제연합도 "죽음과 질병을 일으키는 상품을 팔려고 아프리카를 모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KT&G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KT&G 관계자는 "아프리카 대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대표 동물인 원숭이를 채택한 것"이라며 "광고지의 원숭이는 의인화 정도가 높아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했다. 패키지 변경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귀농 열풍에… 귀농인 자금 대출수요 급증

2년 연속 한도 초과

3%대 금리 최대 2억 지원

도시를 떠나 농·어업인이 되는 귀농·귀어(歸農·歸漁) 정착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歸村) 열풍'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농협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귀농자금 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자는 841가구다.

농협은행은 "올해 대출 목표로 설정한 한도 700억원을 소진할 것 같다"며 "최근의 귀농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사상 최대인 1만1천220가구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가구는 2004년 1302가구, 2008년 2218가구, 2010년 4067가구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1만503가구) 이후 2년째 1만가구를 넘었다.

2009년 시작된 귀농자금 대출은 연 3%의 금리로 최대 2억원의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은 최대 4천만원)을 빌려 15년에 걸쳐 갚는 상품이다.

귀농 장려를 위해 정부가 약 2%포인트의 이자차액을 농협은행에 보전,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매우 낮다.

도입 첫해 142가구, 68억원에 불과했던 귀농자금 대출은 2011년 386가구, 485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1021가구, 651억원으로 한도(600억원)를 소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연속 한도 소진으로 내년에는 귀농 자금 700억원, 귀어 자금 200억원 등 총 9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도록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대출을 받는 귀농인의 자산·부채와 예상 매출액·투입비용 등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현금흐름, 손익분기점을 추정하는 '농업금융상담'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대출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농업금융상담 전담팀을 꾸렸다. 귀농설계 상담은 농협은행 컨설팅 홈페이지(consulting.nonghyup.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당도 높은 감귤 2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 감귤이 선보였다.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당도가 더 높아진 감귤은 지난해 보다 가격이 조금 오른 10kg 1박스에 5만3000원에 판매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백남길 서전사 대표 산업포장 수상

(합)서전사는 24일 백남길〈사진〉 대표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전기안전공사대상'에서 전기안전 및 재해예방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전기재해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전기공사의 고품격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무재해 사업장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백 대표는 광주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장, 광주전업인 장학회 이사장, 전기공사협회 이사, 광주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마트폰 스팸 문자 신고 간단해진다

내년 단말기에 신고기능 탑재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스팸 문자를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폰 단말기에 스팸 신고기능을 기본 탑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할 때 스팸신고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바로 스팸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국제 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신고가 어려워졌다. 이 규격을 도입한 스마트폰은 스팸 신고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발송자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제조사, 이통사와 해당 기능을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수산물 안전 홍보 캠페인'

수협중앙회는 24일 서울역에서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수산물 안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어업인 대표 90여명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찾은 시민에게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전달하며 수산물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수산물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국산 수산물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거쳐 유통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